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와 극단주의의 위협

- 자유주의, 사민주의의 역사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극우'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 교회 극우 진단 연속 세미나
2026. 3. 23.

발표 구성

1. 문제 제기
2. 자유주의·사민주의의 이념
3. 두 전통의 역사적 변천
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담론
5. 뉴라이트와 극우의 논리
6. 결론

핵심 내용

-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모두 자유와 평등을 보편 가치로 구성한다.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주의와 독재 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이 있었다.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우는 실은 반자유, 반민주 성격을 띤다.

1. 서론

- 가치다원사회에서 갈등은 "신들의 전투"(Max Weber) 처럼 격화될 수 있음
- 세계적 맥락: 정치·이념 양극화, 상호 적대, 급진 우파 또는 극우파의 부상과 권력화
- 한국적 특수성: 독재의 유산 + 갈등조정 제도 미성숙 + 민주화 이후 이념 대립의 일반화
- 핵심 위협: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평등·인권·헌정을 공격하는 극단주의 우파(right-wing extremism)
- 전체 논지: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모두 자유와 평등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한국 극우는 이를 왜곡함

세계적 조건

정치양극화
적대성
급진 우파, 극우파

한국적 조건

독재 유산
갈등조정 취약
이념대립 대중화

현재의 위협

'자유'와 '반평등'의
이름으로
현대의 보편가치를
파괴

자유주의의 이념적 요소

- 평등한 자유: 자유는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비종속이며, 만인의 동등한 자유권을 뜻함
- 개인의 자율성: 개인은 원자적 시장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존재
- 법의 지배: 권력 견제는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
- 자생적 질서: 설계주의를 경계하지만, 자동 질서가 아니라 사려·책임·선택의 질서
- 따라서 자유주의는 극우의 배제·동질화·무제한 권력과 양립하기 어려움

① 평등한 자유

비지배
평등한 자유권
사회 속의 자유

② 자율적 개인

존엄
자율성
사회성과 결합

③ 법의 지배

권력 견제
기본권 보호
민주권력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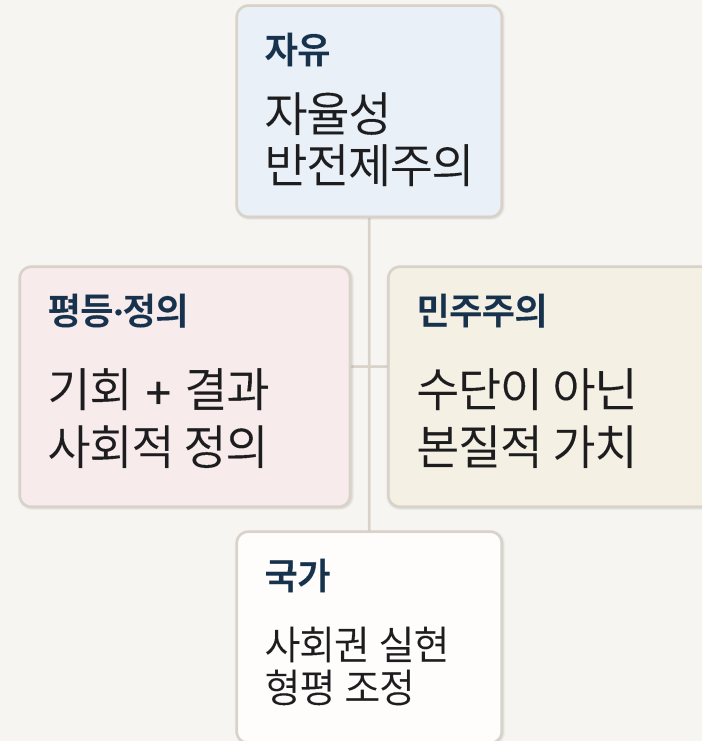
④ 자생적 질서

계획주의 비판
도덕적 책임
공동선의 문제

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의 절대화, 자유만능 아니라 모든 개인의 존엄, 평등한 자유, 권력 견제의 제도화

사민주주의의 이념적 요소

- 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선택적 계승 위에 산업자본주의·계급갈등·민주주의의 경험을 결합함
- 자유: 개인의 자율성·반전제주의를 계승하며 정치적 자유를 중시
- 평등·정의: 자유와 평등은 상호조건이며,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평등은 허구
- 국가: 사회권·형평·공동선을 실현하는 적극적 수단
- 민주주의: 전략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이자 체제 전환의 전제



사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를 보편적으로 실현하려면 평등, 정의, 민주주의, 국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이념의 관계

- 두 전통은 역사적 구성물이며, 상호 배타적인 이념쌍이 아님
- 공통 기반: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의 지배, 기본권, 다원주의
- 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변화하며 평등과 국가 역할을 강화해 옴
- 사민주의는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의 가치들을 종합해 옴
- 따라서 "복지=공산주의", "사민주의=반자유"라는 도식은 이념사의 왜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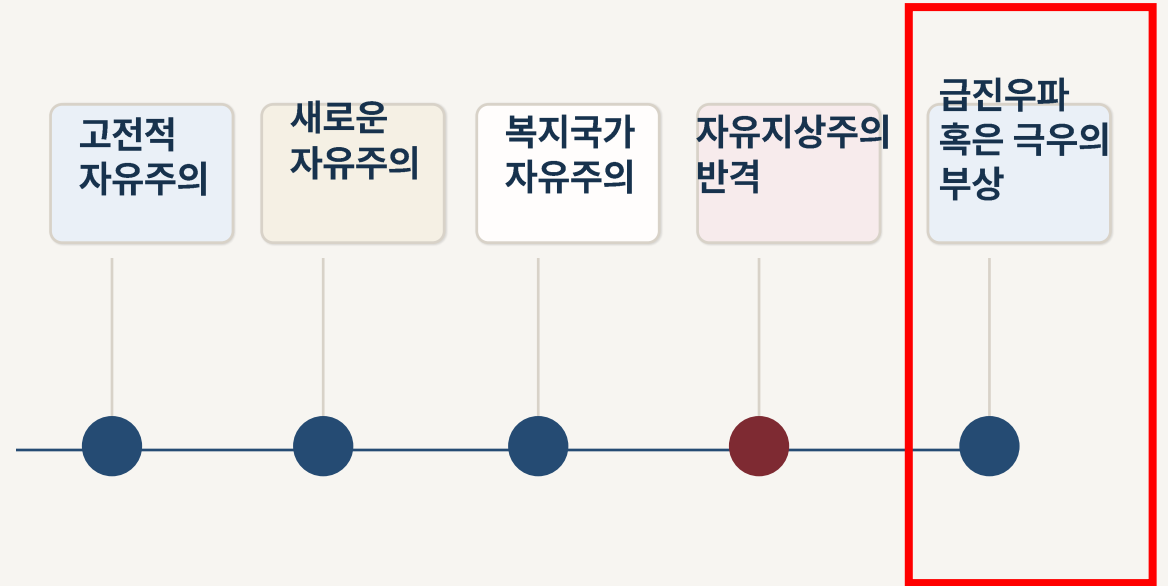


교리의 대립보다 가치의 접합

근대 정치의 두 전통은 자유와 평등을 대립시키는 대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점점 더 긴밀히 결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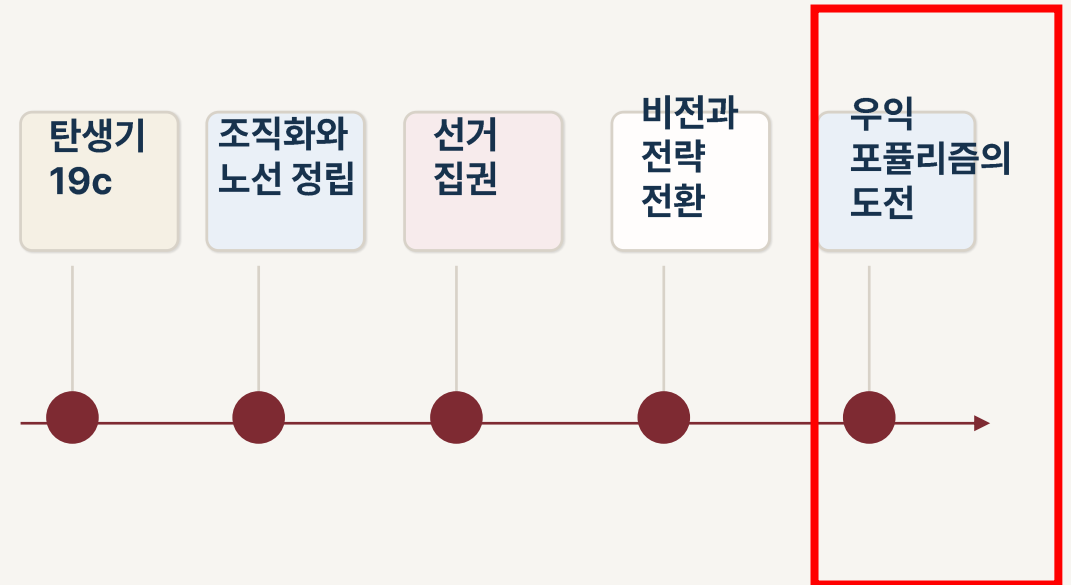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화

- 17-18세기: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기규제 능력을 강조한 초기 자유주의
- 19세기말-20세기초: 산업화·노동운동·대공황의 충격 속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등장
- 전후: 복지국가와 국가조정, 개혁주의적 자유주의의 확산
- 1970-80년대: 자유지상주의·최소국가론·시장근본주의의 강한 부상
- 결론: 자유주의는 단선의 발전사가 아니라 복수의 경로와 혼합을 지닌 전통



사민주주의의 역사적 변화

- 기원: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민주주의 정치의 결합
- 공산주의 세력과 대립하면서 자유·다원주의·의회민주주의 중시하는 체제 전환 전략
- 1920-30년대: 선거 집권으로 정치권력 획득. 바이마르, 스웨덴, 뉴딜에서 정책화와 제도화
- 2차 대전 후: 반자본주의·계급중심성 약화, 최근 우익 포퓰리즘의 도전, 노동계급의 이탈
- 결론: 사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배경 위에 형성, 최근 구조적 위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읽는 세 분석적 차원

- **정치체제 유형:** 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 리버럴/헌법 민주주의
- **정치이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긴장과 불확정성도 존재
- **정치담론:** 실제 제도나 이념과 별개로, 행위자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언설
-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개념 정의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용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함

① 정치체제

리버럴 민주주의
권력분립
보편적 기본권

② 정치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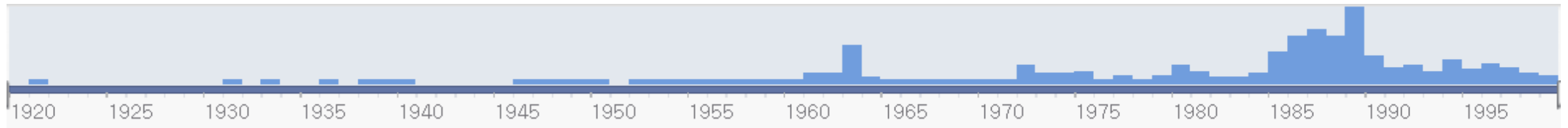
자유주의 + 민주주의
결합과 긴장

③ 정치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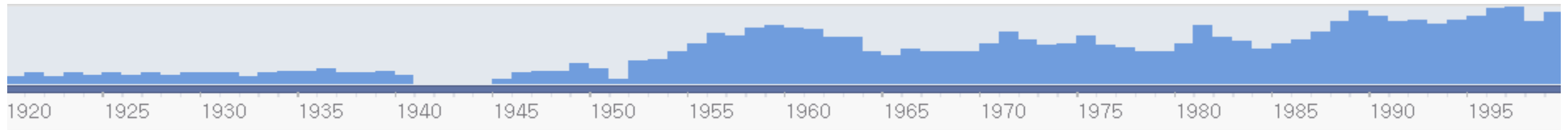
특정 행위자의 언설
정당화·동원·배제의 전략

정치담론 핵심어의 신문기사 출현 빈도, 1920~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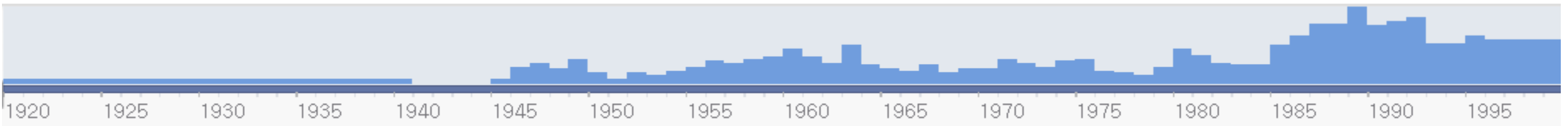
자유민주주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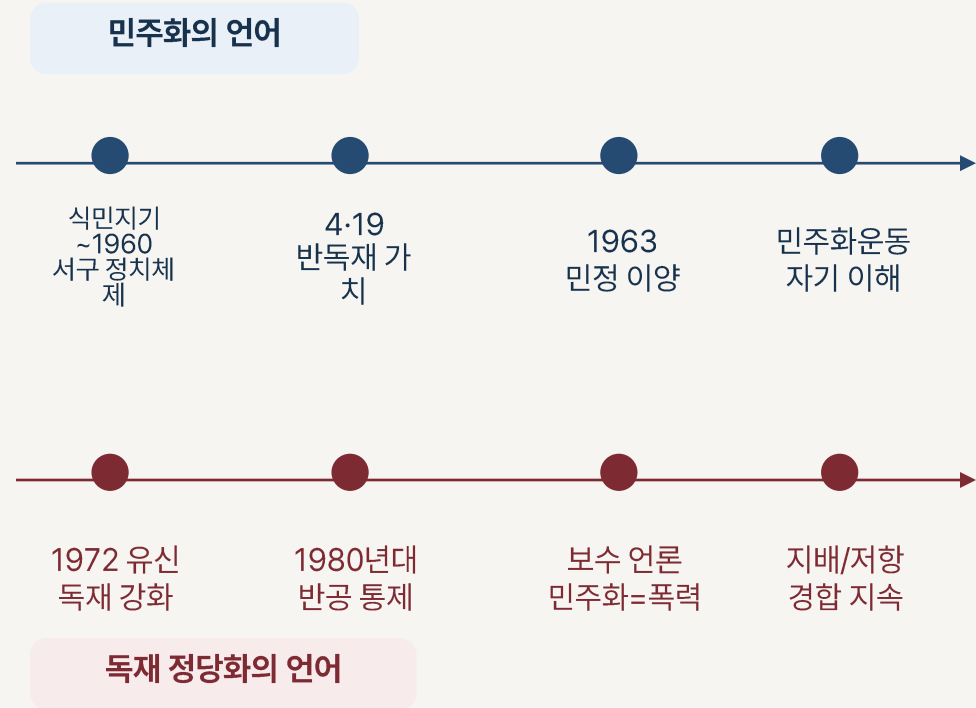


민주주의



4.1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중성

- 1960년대까지: 서구 정치사상, 의회정치, 개인의 권리보장을 가리키는 용법이 우세
- 4·19와 1963년: 반독재 민주화·민정 이양의 가치 언어로 사용
- 1972 유신 이후: 독재 강화와 비상조치의 정당화 언어로 변질
- 1980년대 보수 담론: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로 묘사
- 핵심: 동일한 기표를 둘러싸고 지배와 저항의 담론투쟁이 전개됨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동일한 단어가 민주화의 기표이자 독재의 기표로 작동

자유민주주의 = 미국 독립전쟁과 영국의 정치체제 (1921. 5. 10)



文化史上(문화사상) 米國獨立戰爭(미국독립전쟁) (二十六(이십육))

동아일보 | 1921.05.10 기사(기획/연재)

게하얏도다 다시말하면 和蘭(화란)의 母國本位(무국본위)의 植民政策(식민정책) 이 是(시)로 由(유)하야 廢(폐)하고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의 英國植民政策(영국식민정책)이 全世界(전세계)에 擴大(확대)하얏더라

자유민주주의 =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계몽사상 (1931. 9. 24)



十八世紀(십팔세기)의 佛蘭西啓蒙運動(불란서계몽운동) (五(오))

동아일보 | 1931.09.24 기사(칼럼/논단)

四(사), "早(조)소오"의 個人的(개인적) 自由民主主義思潮(자유민주주의사조)

十八世紀前半期(십팔세기전반기)를 通(통)해서 生長(생장)해온 "몬테스큐 |"" 볼테 | 르"" 디때로"等(등)의 社會的觀察觀念的唯物論的思潮(사회적 관찰관념적 유물론적사조) 다시 "루소오"에 이르러 個人的自由民主主義(개인적 자유민주주의)를具現(구현)시키어드디어佛蘭西大革命(불란서대혁명)의烽火(봉화)를켜들게하였다

자유민주주의 = 선거, 투표, 정치적 기본권 (1946. 12. 17)



朝鮮美蘇軍撤退(조선미소군철퇴)를 促進(촉진) 人民投票實施(인민투표실시)로民主政府樹立(민주정부수립)

경향신문 | 1946.12.17 기사(뉴스)

朝鮮美蘇軍撤退(조선미소군철퇴)를 促進(촉진)
人民投票實施(인민투표실시)로民主政府樹立(민주정부수립)
메소지스트
大會(대회)서決議(결의)

一(일), 南北朝鮮駐屯美蘇(남북조선주둔미소) 兩軍(양군) 撤退(철퇴)를 促進(촉진)시킬것
二(이), 同時(동시)에對(대)UN人民(인민) 投票監視委員(투표감시위원)을任命(임명) 할것 同委員(동위원)은 可及(가급) 的速(적속)히 朝鮮(조선)에서 人(인)民投票(민투표)를實施(실시)케하야 自由民主主義政府(자유민주주의정부)를 樹立(수립)케할것

그리고 同會(동회)에서는 比律賓(비을빈) 新共和國(신공화국) 建國成功(건국성공)을 爲(위)하야 西歐民主主義(서구민주주의)가 아직도 強硬(강경)하다는 것을 表示(표시)하는데 好機(호기)이라고 規定(규정)하는 同時(동시)에 朝鮮(조선)은 東洋(동양)에서 가장 基督教(기독교)에 感化(감화)될수 있는 國家(국가)라고 고말하였다한다

4·19 혁명 = 자유민주주의 = 反자유당 독재 (1960. 4. 19)



民主原動力(민주원동력)

조선일보 | 1960.04.19 기사(뉴스)

民主原動力(민주원동력)

서울釜山(부산)등데모

民主黨代辯人談(민주당대변인담)

民主黨(민주당)의 曹在千宣傳部長(조재천선전부장)은 十八日 下午(십팔일하오) 이날 서울 釜山(부산) 淸州等地(청주등지)의 學生(학생) 「데모」 에 關(관)해 다음과 같은 談話(담화)를 發表(발표)하였다

『十八日(십팔일)에는 서울 釜山淸州(부산청주)에서 大(대)대적(대대적)인 學生(학생) 「데모」 가 일어났다

學生(학생)들은 平素(평소)에 배워 온 學園(학원)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그리고 正義(정의)를 부르짖고 나선 것이다

自由黨政府(자유당정부)는 이것도 또 共產黨(공산당)의 背後操縱(배후조종)에 依(의)한 것이라고 덮어씌울 것인가? 官製(관제) 「데모」 는 強要(강요)하면서 이 自發的(자발적) 「데모」 는 彈壓(탄압)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독재 정당화 담론의 중심 상징으로 변질되는 결정적 전환

1972년 박정희가 '유신'으로 1인 지배 체제를 수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체제'가 독재를 정당화 하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핵심 용어로 등장,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호소하는 민주화 세력과 대립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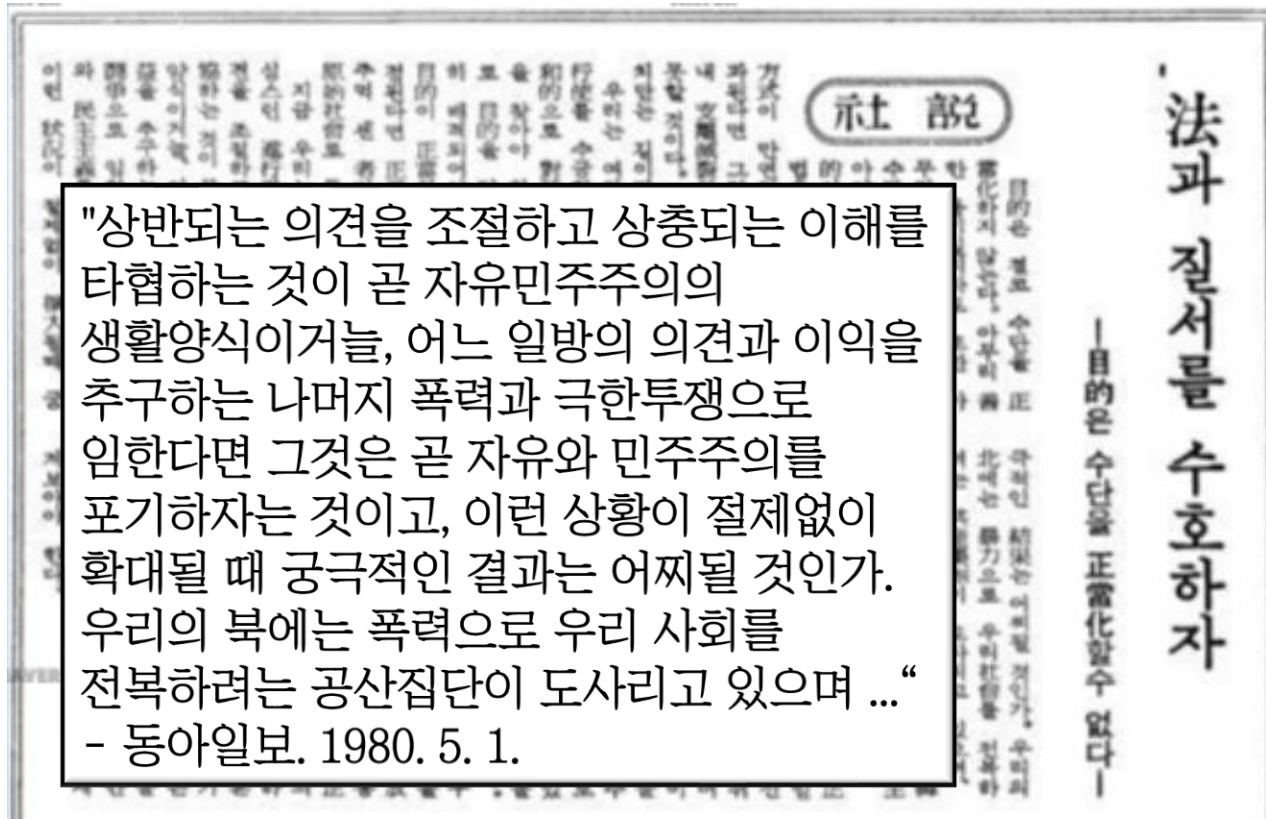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 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주 체제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 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두 자유민주주의’ : 상반된 담론사적 전통의 교차와 대립

1980년 5·18 광주 항쟁을 전후하여, 민주화 항쟁 주체들은 진압군을 ‘공산당’, ‘인민군’에 비유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호소. 반면, 언론은 민주화 투쟁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한 “폭력과 극한투쟁”으로 비난



“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찢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으로 실어가며, 부녀자를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이 공산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1980. 5. 19)

“무참히 살육 당한 광주시민의 참상은 필설로써 설명할 수 없고 눈뜨고는 볼 수 없었으니 나이먹은 어른들은 하나같이 6.25 때 인민군들도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다고 통탄하였다.” (1980.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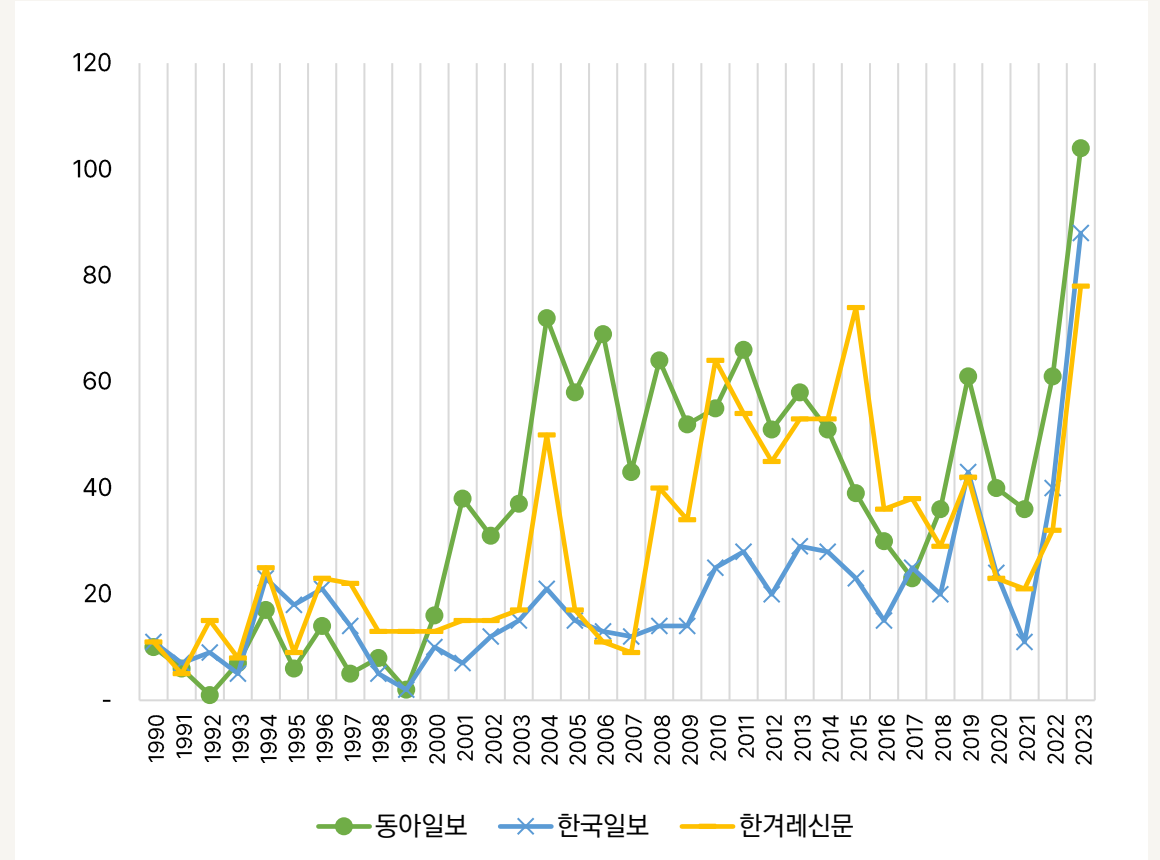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6.25때도 이런 참혹한 살육전은 없었다고 울부짖으며” – 1980. 5. 24. 전남대 교수 일동. <대한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 60만 국군은 부모형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즉각 거두고 반공·국토방위 임무에만 전념해주기 바란다.” – 1980. 5. 25. 목포시 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 <광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출처: 신진욱. 2011. “광주항쟁과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의 탄생: 저항적 시민사회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조해석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45(2): 5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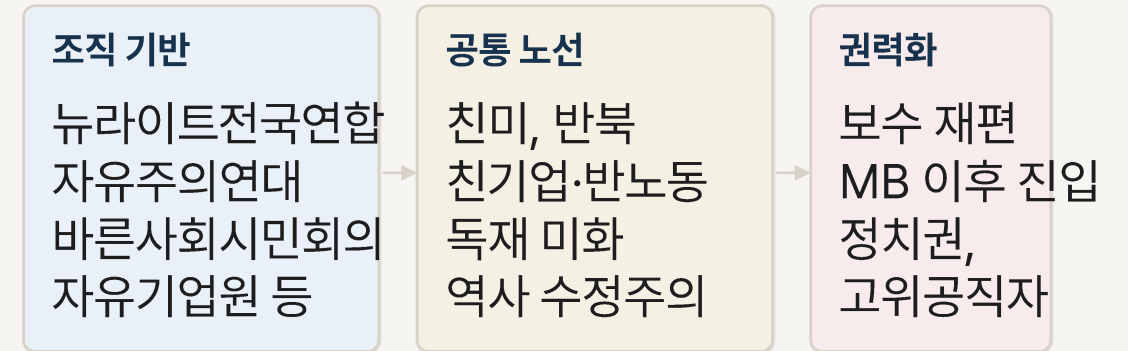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극우" 관련 담론의 증가

- 민주화 이후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는 약화
라기보다 재구성의 과정을 거침
- 1990-2023 언론 분석: "자유민주주의"가 "좌파·종
북·공산·친북" 등 극단적 언어와 동일한 텍스트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
- 특히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이 같은
담론적 결합이 역사상 유례없이 급격히 강화
- 보수 매체일수록 복합어 사용 빈도가 높고, 반좌파·
반북 프레임과 강하게 연결
- 결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 추이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담론 증가



뉴라이트의 극우화와 권력화

- 배경: 김대중·노무현 정부, 2004 탄핵 실패 이후 보수 헤게모니의 위기의식
- 조직 기반: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싱크넷, 교과서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
- 공통 노선: 반북주의, 한미일 동맹, 친기업·반노동, 시민행동 경계, 식민지근대화론, 이승만·박정희 재평가
- 내부 분기: 성찰적 보수 혁신 vs 민주화 세력 공격과 헤게모니 탈환
- 결과: 후자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MB 이후 국가·공공기관으로 권력화



"뉴라이트"는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네트워크, 그중 극단적 흐름이 주도권 쥐고 권력화

‘자유민주주의 극우’의 반자유·반민주 논리

(a) 반공반북 체제수호론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애국 정체성으로 환원
 → 반대파를 정치공동체 내부의 적으로 규정
 → 사상 통제와 국가보안법 정당화

(b) 신자유주의적 독재미화론

시장 자유를 핵심 자유로 특권화
 → 식민지·군부독재 시기를 자유 발전사로 재해석
 →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오히려 자유의 위축으로 진단

(c)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해야 한다는 발상
 → 다른 신념은 국가의 적으로 배제·처벌
 → 자유를 통제와 계몽의 명분으로 전도

공통 구조: 자유를 실질적 권리·다원주의가 아니라 적대적 동원과 통제의 기표로 바꾸는 것
 → "자유민주주의 극우"는 자유주의/보수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그 부정

5.2 (a)

체제 수호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 박효종의 반공반북 자유민주주의

(a) 반공반북 체제수호론

- 6·25 전쟁 경험을 통해 강성 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착
- 시대의 근본 문제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이분법으로 파악
-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애국 정체성으로 환원

(b) 반자유 세력의 내부의 적화

- 1987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미완의 책임을 민주화 세력에 전가
- 민주화 세력을 '좌파 진보'로 이념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주체사상·반미·친북 민족주의로 낙인, 비판
- 정치적 반대파를 '공동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주의

(c) 국가보안법 정당화

-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규정
- 반자유민주 세력 추방을 위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의미화
- 사상 통제와 배제의 법적 근거를 정당화

공통 구조: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애국 정체성으로 환원
→ 반대파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통제를 정당화

5.2 (b)

권위주의적 질서자유주의 - 신일철의 독재체제 자생적 질서론

(a) 문명전통으로서 자유주의

- 의회민주주의·법의 지배·자유언론·자유시장경제를 포괄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문명 전통
- 자유를 권리의 확장보다 문명적 성취의 계승으로 이해

(b) 질서자유주의 옹호

- 자유방임주의보다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옹호
- 자유를 무규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질서 속 자유로 재정의
- 그런데, 독재 시대를 자유의 시대로 해석하고, 민주화 이후를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인식

(c) 자생적 질서론

- 일제식민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자유시장질서가 자생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해석
- 그에 반해 독재 과거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비판을 자유의 전통을 파괴하는 시도라고 비판
- 독재체제의 유산을 질서의 자생성으로 정당화

공통 구조: 자유를 개인 권리보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질서로 재정의
→ 민주화 이후 개혁 요구를 자생적 질서의 해체 위협으로 인식

5.2 (c)

전체주의적 자유주의 담론 - 복거일의 자유주의 밈 전쟁론, 밈 주입론

(a) 노사정 협의체에 대한 왜곡된 비판

-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전체주의적 corporatism의 구현으로 해석
- 이를 민족사회주의의 경제 이념과 연결하며 '단체주의'로 규정
- 자본주의 불평등과 이익 갈등의 완화를 위해 많은 민주사회에 존재하는 제도를 전면 거부.

(b) '자유주의 밈 전쟁'론

- 사람이 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밈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인식
- 자유주의자들은 장기적이고 힘든 이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자유주의를 다원적 공존보다 경쟁 밈의 승리로 이해

(c) '올바른 자유주의' 주입론

- 민족사회주의를 대체할 더 나은 이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점유해야 한다는 발상
- 자유를 통제·계몽·주입의 대상으로 전환
- 문화전쟁과 사상 주입의 논리를 강화

공통 구조: 자유주의를 다원적 공존이 아니라 경쟁 밈의 승리로 이해
→ 올바른 자유주의 주입과 장기 문화전쟁의 논리 강화

자유와 평등은 현대정치의 공유 가치다.

- 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상호배제보다 상호연결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옴
- 양자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의 지배, 기본권의 보편성을 중시함
- 한국 극우는 자유·평등·민주주의를 실질 가치가 아니라 상징 자원으로 사용함
- 과제 1: "자유민주주의"의 실질 기준 - 권리, 다원주의, 헌정, 평등한 시민권 - 을 회복
- 과제 2: 자유·평등·민주주의·인권·법치의 동시 방어를 위한 가치의 대화와 재결합

종합적 결론

극우주의는 자유·보수·민주주의의 언어를 탈취하고, 평등주의를 극좌, 공산주의로 배척하여 자신의 정치 공간을 확보하고 권력화하려는 기획

미래 과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에 대한 보편적 합의 위에서 진보와 보수가 경쟁, 협력하는 민주주의 모델,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

감사합니다